
남해군 폐교활용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 캠핑장 기획·설계 제안공모

심사 종합의견서

건축과 기획을 통하여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지역의 거점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의도가 담긴 공모전이라는 점이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관점들을 모아 치열하게 당선작을 선정한 만큼 공모전의 의도에 부합되도록 잘 다듬어져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지역의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당선작은 바다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논과 지형의 풍경 지점들을 잘 기획한 캠핑존이라는 외부공간으로 다양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차별화된 제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남해가 가진 지역적 속성들을 활용하여 기획으로 융합하려고 한 지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건축과 기획의 풍부한 내용들이 균형의 지점을 잘 자리 잡고 제안되었습니다.

2등작은 대지의 높이 차이를 활용하여 외부공간의 캠핑장과 내부공간인 부대시설을 수직적으로 조직하여 풍경에 대응하고자 한 접근이 부지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제안이었습니다. 지형으로 형성된 건축은 폐교의 기억적 장치이고 저층의 수평적 구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제안한 부분이 차별점이었습니다.

3등작은 지역사회의 작은 스케일로 프로그램과 단위 공간들을 해석하여 편안한 공간감을 연출한 제안이었습니다.

4등작은 통합시설의 중심적 공간 배치를 통하여 순환형 구조를 만들고 외부공간을 조직한 부분과 높이 차이에 따른 방사형 구조를 외부 지형적 판으로 구축하여 해결한 부분이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5등작은 다랭이 논이 가진 지형과 폐교 부지의 흔적을 활용하여 프로그램과 외부 야영장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공간적 풍경을 만들고자 한 점이 아주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2024년 2월 7일

심사위원장 정웅식(서명)

남해군 폐교활용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 캠핑장 기획·설계 제안공모

심사의견서

남해의 서면중학교 폐교 터를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아주 의미있는 공모전입니다. 특히 지방소멸의 시대에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기획아이디어와 그에 맞는 건축적인 아이디어는 매우 우수하였습니다.

다만 폐교를 이미 철거한 것은 매우 아쉬우며, 폐교에 대한 건축가의 자세들은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한 남해의 지경, 사이트를 물리적인 한계를 넘은 분석과 해석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선작은 뛰어난 기획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된 안이었다. 하지만 건축적인 조형과 장치들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과정에서 좀더 우수한 결과로 진전되기를 희망합니다.

2등작은 폐교의 터와 지역의 소박함이 잘 묻어나고, 이용자들의 공간적 경험이 예측되는 우수한 안입니다. 하지만 제안한 기획내용, 콘텐츠에 치밀함이 좀 부족합니다.

3등작은 건축을 가장 작은 볼륨으로 사이트에 흠어놓은 매력적인 안입니다. 하지만 사이트의 전체 계획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제시된 건축볼륨들이 일관성이나, 건축가의 지향점이 약하게 드러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4등작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학교의 폐교 흔적이나, 지형에 대한 해석에서는 일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형의 디자인부분은 폐교의 터라는 특성과 지역주민이 운영해야하는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5등작은 남해의 상징과 다랭이논의 지형을 사이트 안으로 연장시키는 우수한 안입니다. 건축이 뿔내지 않는 자세를 취한 것은 매우 존중할 내용입니다. 건축과 지형의 다양한 결합적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심사위원 오신욱

(서명)



남해군 폐교활용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 캠핑장 기획·설계 제안공모

심사의견서

당선작 : 기획 내용이 상세하고 남해군과 사업 대상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계획 내용이 현실성이 있고 운영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건축적인 관점에서는 건물의 형태와 규모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과의 조화가 미흡하다. 이 부분은 향후 개선되길 바란다. 대지의 지형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섬세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2등작 : 지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돋보이며 건축적인 완성도가 높은 제안이다. 다만 기획과 운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기존 캠핑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마치 미술관과 같은 동선계획과 건축적인 장치들이 인상 깊었다. 단단 놓인 캠핑장이 다소 경직되어 보이는 면이 있다. 건축적 명확성이 신선한 제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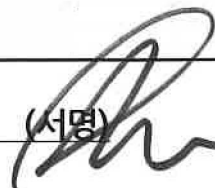
3등작 :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형을 조성하여 넓은 광장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캠핑장을 편안하게 배치한 계획이다. '노구리 마을 캠퍼스'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우수하고 전체적으로 현실성이 있고 편안한 제안이다. 다만 '바래언덕'에 제안한 목욕탕과 수영장은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4등작 : '자원순환을 경험하는 건강한 친환경 제로캠핑장'의 이상적인 컨셉은 남해의 지역성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 다만 컨셉에 충실하게 전체적인 기획과 건축 계획이 이루어진 점은 인상 깊었다. 배치 계획에서 차량 동선이 캠핑장 내부로 순환하는 구조는 보행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중앙의 원형 광장은 쓰임이 명확하지 않고 그 안에 조성된 텃밭은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5등작 : 컨셉이 명확하고 건축의 완성도가 높다. 남해바래길과 연결되는 부출입구 부분에 넓은 마당을 주어 산책로와의 연결을 강화한 점이 돋보인다. 다만, 배치에서 오토캠핑장이 부지 전면에 배치하여 전망을 가리게 되는 아쉬움이 있고 건축물의 규모가 작고 프로그램이 다소 경직되어 보인다. 다랭이논과 돌창고를 모티브로 남해의 특성을 살린 부분은 우수하나 글램핑 유닛과는 다소 조화롭지 못해 보인다.

심사위원

윤 경 숙 (서명)



남해군 폐교활용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캠핑장 기획·설계 제공모

심사 의견서

1999년에 폐교한 서면중학교 부지를 대상으로

폐교활용이 아닌 부지를 활용하여 공모에는 숙박시설이라고 명기하였으나 야영·캠핑장만 가능한 설계공모로서, 서면내 여러개 마을이 협동하여 관리할 것이며 운영수익을 마을주민이 공유한다는 독특한 프로젝트였다.

개인 평가의 주안점은 (1) 철거된 폐교의 장소성을 마을 주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철거된 건물의 위치에 대한 해석이라 생각했고, (2) 설치되는 시설들은 유지 관리 및 운영에 지속가능이 유리한 대안을 선정한다는 것 (3) 도입되는 야영장 시설의 차별성에 두었다.

당선작은 야영장 설계의 치밀성과 대상지 주변에 대한 넓은 각도의 분석, 유동적인건축물 이 용계획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2등작은 야영장부지의 해석과 건축적 설계에 섬세함이 나타났으나 실행주체로서 운영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웠다.

3등작은 야영장 공간의 구획과 야영시설 배치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특징이었으나 법령상 설치불가능한 제2종 근생시설의 도입이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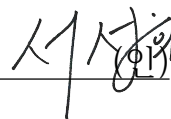
4등작은 야영장과 식물의 자원순환을 컨셉으로 친환경적인 야영장을 조성한다는현 시대에 부응하는 설계안이었으나 야영장의 운영에 소요되는 지역인력 유입의 어려움과 텃밭등 시설의 유지관리면에서 지속가능이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5등작은 설계자가 해석한 남해를 컨셉으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안을 제시하였으나.그들이 없는 야영장 이용의 불편과. 야영시설 개수가 적어 시설의 운영수지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2024년 2월 7일

심사의원

서 성 희



남해군 폐교활용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 캠핑장 기획·설계 제안공모

심사의견서

당선작 : 다양한 기능과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 프로토타입을 제시함. 외부 운영주체를 활용하는 등 진정성 있게 프로그램을 구상함. 다만 지붕의 형태, 매스가 대상지를 압도함.

2등작 : 관념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야영장의 형태와는 달리, 건축적 요소를 이용하여 공간의 구성을 인공적이고 짜임새 있게 제시했음. 제시된 아트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3등작 : 바다라는 맥락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점이 오히려 현실성 있어 보임. 지형조작을 통해 형성된 중앙공간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매우 잘 작동하리라 생각됨. 다만 일부 건물의 배치는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4등작 : 대지의 지형을 독특하게 활용하였음. 전체적인 골격은 훌륭하지만 순환동선, 텃밭, 오토캠핑 등 부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공간, 시설들이 있음. 관리, 운영의 프로그램이 개념적으로 밀도 있게 제시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측면들이 있음.

5등작 : 설계 개념이 명확하고 형태적으로도 아름답지만 이용자의 측면에서, 특히 외부공간의 이용이 단조로울 것으로 생각됨. 식재나 건축적 장치를 이용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기능적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심사위원

전진현

(서명)



남해군 폐교활용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 캠핑장 기획·설계 제안공모

심사의견서

- 전반적으로 건축적인 측면에서의 전문성과 완성도는 뛰어남
- 건축가의 경력이나 이전 진행 작품의 과업 연관성은 양호함
- 캠핑장이라는 특징에 부합하면서 지역의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이해도가 높음
- 지역 자원이나 환경에 대한 조사와 전략 제시에는 편차가 있음
- 운영안 또는 운영진 공동 제안에 대부분 지역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낮음
- 향후 주민 운영에 대한 대비가 미흡함

■ 당선작

- 건축과 운영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인 수준의 조사와 분석
- 철거된 폐교의 심상을 살리는 디자인적 시도 뛰어남
- 운영 전략 매우 현실에 부합하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임

■ 2등작

- 건축 용도가 사업 제안에 부합하지 않음(캠핑장이 아닌 작가주택 제안)
- 실질적 운영 전략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
- 지역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조사가 미흡한 편

■ 3등작

- 건축 개념이 감성적이고 관광 트렌드에 부합함
- 프로그램이나 시설(목욕탕/수영장 등) 운영 가능성이 지역 현실상 제약이 있음
- 장소 브랜딩 전략 요소가 다소 미흡함

■ 4등작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제안 내용이 무난함
- 프로그램 철학이 양호하며 가족 단위의 교육 목적에 부합함
- 농촌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프로그램 실효성 부족한 편

■ 5등작

- 건축적 구현이 무난하며 실용적일 것으로 사료됨
- 지역에 대한 연구와 활용 전략이 단순 여행기 수준으로 미흡함
- 실질적 운영 전략이 거의 보이지 않아 아쉬움

심사위원 이 선 철 (서명)

남해군 폐교활용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 캠핑장 기획·설계 제안공모

심사의견서

당선작

컨셉이 명확하고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부분도 고려하여 외부로 확장하는 프로그램이 인상적임. 실제로 일을 할 사람을 고려하여 기획을 한 것도 인상적임. 전체 발표 중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2등작 |

건축물 디자인이 돋보임. 하지만 캠핑장 프로그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캠핑장으로서 존재가 불투명함. 수익 및 기획이 불명확.

3등작 |

프로그램 및 건축 디자인 준수함. 하지만 캠핑이라는 목적성에 부합하면 적당하지 않음. 유럽에 있는 타운하우스 또는 골프장의 어느 모습과 상당히 비슷함.

4등작 |

컨셉이 현 시대에 어울리고, 트렌디 하지만 남해의 특성상 실제로 일을 할 사람도 그리고 즐길 사람도 부족해 보임. 실제로 캠프장의 수입과 실제로 컨셉을 실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갈 비용(인건비)을 고려하면 많이 부족해 보임. 수익성 부분에서 현실성이 부족함.

5등작 |

앵커역할을 꿈꾸며 아티스트 마켓 등을 말했지만, 실제로 조금 부족해 보임. 나무를 고려하지 않고 컨셉에 의존을 해서 실제로 캠핑장이 될 경우에는 그늘이 존재하기 어려움. 지역과 목적에 맞는 컨셉 및 설계가 아쉬움.

심사위원 이창길

(서명)

